

《영조실록》

1728년 ‘이인좌의 난’ 과 영조의 탕평 리더십

“은 나라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임금도 없고 국가도 없구나.” 갓 즉위한 영조의 한숨 섞인 개탄이다. “재능 없는 사람이라도 소매를 떨치고 앞장서서 당설(黨說)을 장황하게 주장하면 높은 관직을 얻고, 당파에 들지 않으면 뛰어난 인물이라도 무능하다고 버림받는”(영조실록 4/3/25) 세태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무망한 일이었다.

글_박현모

편당정치의 어두운 유산

젊은 영조를 화나게 한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료들의 태도였다. 예를 들어 소론 강경파 김일경은 국왕의 반교문(頒敎文)을 작성하면서 과거 왕을 죽이고 권좌에 오른 역사적 사례들을 교묘한 문구로 삽입해 놓았다. 본인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영조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다. ‘형(경종)을 독살하고 노론에 기대어 왕위에 오른 임금’이란 쪽지가 주막집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실정이 아닌가. 그런데도 김일경은 반성은 커녕 국왕을 향해 머리를 뺏뺏이 세운 채 ‘차(戾身)라’는 말 대신 ‘나(吾)’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죽이라”고 대들었다.

오로지 자기 당파가 세운 임금(경종)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진 탓이었을까. 1728년 3월 전(前) 우의정 최규서가 ‘급서(急書)’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영조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다음 날인 3월 15일에 경기도 용인 등지에서 반군이 집결하여 도성을 향해 쳐들어올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영조는 “해마다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고통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데, 간사한 무리들이 서로 이끌어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흔한 ‘난동’의 하나로 생각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반응은 오명항에게서도 나타났다. 병조판서 오명항은 “근래 께서(榷書: 대자보)하는 일들이 오로지 조정을 겁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써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라며 선불리 계엄(戒嚴) 내리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는 사이에 이인좌 등이 이끄는 반군은 3월 15일에 청주성을 함락하고, 목천·진천을 거쳐 안성·죽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론 강경파인 이인좌는 숙종조 이래 계속된 빈부의 양극화와 연이은 흉년으로 흉흉하던 민심을 등에 업고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했다. 그는 인근의 의원(醫員) 등 중인집단의 지원에 힘입어 임금이 쓰는 홍양산을 만들고 옥새를 제작하는가 하면, 소현세자의 3세손 밀풍군을 추대하는 등 치밀하게 ‘반정(反正)’을 주도해 갔다.

풍전등화의 영조 정권과 ‘난중 영웅’의 탄생

최규서의 급서가 올라온 이후 도성의 쌀값이 폭등하고, 한강 나무가 피난민들로 발 딛을 틈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신들은 반군의 규모나 주동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주성이 함락되었다는 급보를 들은 영조가 부랴부랴 토벌군을 조직했지만, 총사령관인 김중기는 “타고 갈 말이 없다”거나 “장단 지역의 군대가 올라오면 그 때가겠다”고 말하는 등 차일피일 출발을 미루었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도 각각 반란이 일어났다. 전라도에서는 소론의 박필몽이 현직 관리들(전라감사·태안현감·담양부사)과 연계해 난을 일으켰다. 경상도 일부 지역은 “백성들이 모두 적에게 내응”할 정도로 “적세(賊勢)가 더욱 치성했다.” 경상도 민심이 이처럼 반군 쪽으로 기운 까닭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소외감과 이 지역의 남인계 명망가 정희량의 치밀한 사전준비 때문이었다. 이제 평안병사 이사성이 서쪽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서울에서 금군별장 남태징이 궁궐에 심어 놓은 자객들만 동원해 내용한다면 '반정'의 성공은 거의 성공한 거나 다를바 없었다.

이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영조 정권을 구한 셋별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바로 애초 계엄을 반대했던 병조판서 오명항이었다. 직산 북쪽의 소사(素沙)지역까지 반군이 올라 오자 조정은 바야흐로 국왕의 파천(播遷·피난)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오명항은 자신이 "직접 가서 적을 토벌하겠다"고 나섰다. "병조판서는 국왕 곁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주위 대신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박문수를 보좌관(從事官)으로 삼아 경기도 진위로 출발했다.

도순무사 오명항의 첫 번째 승전요인은 치밀한 정보 활용에 있었다. 그는 관군 안에 반군의 첩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했다. 겉으로는 직산으로 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가까이 있는 안성으로 이동해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편, 이인좌가 이끄는 반군보다 먼저 청룡산의 높은 고지를 선점했다. 그날 밤 뒤늦게 당도한 적군의 함성에 놀란 관군에게 오명항은 "굳게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단지 대오만 정돈한 채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포를 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사이에 병사들에게 죽을 준비해 먹이고 그는 그 것처럼 코를 끌기도 했다. 그러자 진중이 비로소 안정되었고, 근접한 적들은 신기전 공격을 받으며 크게 패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안성 전투에서 자신감을 얻은 관군은 뒤이은 장항령 전투에서도 유리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승세를 잡았으며, 죽산에서는 이인좌 등을 생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죽산부 전투에서 오명항은 "오로지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자만 상을 주겠다"라고 하여 무고한 백성의 살육을 막기도 했다. 실록에 따르면 이러한 오명항의 조치에 감응한 죽산부 백성들이 이

인좌를 비롯해 자칭 청주목사 권서봉 등을 사로잡아 바쳤으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군기와 마뽕, 그리고 쌀과 옷 등이 관군 진영에 들어왔다(영조실록 4/3/21).

박문수의 활약과 영조의 탕평 선언

충청·경기도의 반군을 진압하는 데 오명항의 활약이 컸다면, 경상도 지역에선 박문수의 공로가 컸다. 박문수는 오명항이 적의 매복을 우려해 추풍령 고개 넘는 것을 두려워하자 "적이 안음에서 일어났는데 선산이 그 앞에 막혀 있고, 다시 상주가 있어서 적들이 반드시 이 두 진을 깨뜨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신속히 관군을 이동시켜 승세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남 백성들이 반군에 내용했던 것 때문에 산속에서 나오지 않자 단기(單騎)로 촌락을 두루 돌아다니며 조정의 포용책을 알려 농사에 전념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백성들 못지않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반란 세력과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조정 신료들이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이번 반역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소론과 남인들은 물론이고, 금군별장 휘하의 군인들은 난의 평정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환국과 보복정치를 크게 두려워했다.

하지만 국왕 영조는 포용과 탕평을 선언했다. 그는 편당(偏黨)과 환국이라는 나쁜 정치풍토가 이런 반란을 초래했다면서 치우친 정치를 바로 잡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노라고 약속했다. 실제로 그는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파를 초월해 인재를 고르게 등용했다. 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영조가 비로소 '노론의 군주'가 아니라 '조선의 국왕'으로 자리 잡는 첫 실마리가 여기서 열렸다. **【한글】**

박현모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연구실장이다. 저서로는 《정치가 정조》 《세종의 수성(守城) 리더십》 등이 있다.

